

손흥민 vs 벤탐쿠르... '토틀넘 동료가 월드컵에선 적으로'

한국, 우루과이와 내일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H조 첫 경기
손흥민, 토틀넘서 한술밥 먹는 벤탐쿠르와 맞대결 예정

벤탐쿠르 '캡틴' 손흥민(30·토틀넘)이 2022 카타르월드컵 첫 경기에서 소속팀 동료인 우루과이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탐쿠르(25)를 적으로 만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4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안 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우루과이와 대회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치른다.
소속팀에서 한술밥을 먹는 손흥민과 벤탐쿠르는 나라를 대표해 양보 없는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은 올해 6월 샌추리 클럽(A매치 100경기 출전)에 가입한 간판 선수다. A매치 104경기에서 35골을 기록하고 있다.
우루과이의 미드필더인 벤탐쿠르 역시 A매치 51경기(1골)를 소화한 핵심이다.
둘이 각자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붙는 건 처음이 아니다.
한국과 우루과이는 2018년 10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 경기를 벌였는데, 한국이

황의조(보르도), 정우영(알사드)의 득점으로 2-1 승리했다.
한국이 우루과이를 상대로 거둔 첫 승리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8위인 한국은 우루과이(14위)와 역대 전적에서 1승1무6패로 열세다.
당시 손흥민과 벤탐쿠르는 나란히 선발로나와 풀타임을 소화했다.
다만, 그때는 벤탐쿠르가 유벤투스(이탈리아)에서 뛰고 있어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다.
벤탐쿠르는 2022년 1월 겨울 이적시장을 통해 토틀넘으로 이적했다.
이후 둘은 절친한 사이로 발전했다. 지난 13일 월드컵 휴식기 전 마지막으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리즈 유나이티드와 경기(4-3 승)에서 벤탐쿠르가 멀티골로 토틀넘 승리를 이끌자 안와 골절상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손흥민이 처음 경기장에 나타나 함께 기뻐했다.
벤탐쿠르는 카타르에 오기 전부터 손흥민이

마스크를 착용할 거란 사실도 알고 있을 정도였다.
그러면서 "나는 (손흥민의) 어디를 건드려야 하는지도 안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부상으로 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했던 손흥민은 지난 16일 카타르로 넘어와 토틀넘에서 준비한 마스크를 쓰고 우루과이전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우루과이전을 3일 앞둔 21일에는 가볍게 해딩 훈련을 실시하는 장면이 포착될 정도로 부상 부위 회복이 많이 된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이달 초 마르세유(프랑스)와의 2022-2023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종전 경기 도중 상대 선수와 충돌해 왼쪽 눈 주위가 골절돼 수술받았다.
손흥민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타이거 맥주' 협찬 광고 형식으로 "준비는 끝났다. 나의 가장 큰 꿈을 좇을 시간(Preparation is over. Time to chase my biggest dream)"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월드컵 출전을 예고했다.
벤탐쿠르도 부상 등 변수가 없는 한 한국전 선발 출력이 유력하다.
우루과이 대표팀과 지난 19일 H조 4개국 중 가장 늦게 카타르에 도착한 벤탐쿠르는 정상적으로 훈련에 참여해왔다.



월드컵서 적으로 만나는 손흥민과 벤탐쿠르.

뉴욕타임스 "손흥민 없다면 한국 16강 진출 어려울 것"

"우루과이에 한국은 쉬운 상대"

한국이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려면 손흥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2(현지 시각) 뉴욕타임스는 '2022 월드컵: 각 팀이 16강에 진출하는 방법'이라는 기사에서 한국에는 손흥민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매체는 "한국은 3주 전에 악몽에 직면했다"

며 "토틀넘 공격수이자 유일한 한국 슈퍼스타인 손흥민이 왼쪽 눈 주위에 골절상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손흥민은 팬들에게 본인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며 "그가 없다면 한국이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하기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달 24일 한국이 2022 월드컵 첫 상대로 만

나는 우루과이에 관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이어 남미 세 번째 강호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루과이는 쉬운 상대인 한국과 토너먼트를 시작한다"며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조별리그 진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



김수지(사진=KLPGA 제공)

김수지, 첫 KLPGA 대상...박민지 다승·상금왕

김수지(26)가 생애 첫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2시즌을 마무리하는 '2022 KLPGA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KLPGA 대상 시상식은 1999년부터 이어져 왔으며, 한 시즌을 마감하는 여자 프로 골프 축제의 장이다.
이날 주인공은 김수지였다.
김수지는 생애 첫 대상(대상 포인트 760)에 이어 최저타수상(70.47)까지 거머쥐었다.
김수지는 지난 9월 OK금융그룹 박세리 인비테이셔널과 10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 올랐고, 두 차례 준우승, 톱5 10회 등 이번 시즌 가장 기록 없는 경기력을 선보였다.
김수지는 톱10 피니시율(62.96%) 부문에서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27경기에 출전해 17경기에서 톱10에 진입했다.
박민지(24)는 이번 시즌 6승을 수확해 2년 연속 다승왕, 상금왕에 등극했다. 2년 동안 무려 12승을 올리며 KLPGA 투어 최강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군림하고 있다.
하지만 박민지는 톱로코스터 경기력을 보여줘 대상 포인트(654) 3위에 머물러 2년 연속

대상 수상에는 실패했다. 유혜란은 대상포인트 692로 2위를 차지했다.
이예원(19)은 신인왕을 거머쥐었다. 이예원은 데뷔 첫 승을 신고하지 못했지만, 톱5에 11번이나 올라 프로에서의 경쟁력을 뽐냈다.
KLPGA 정규투어에서 10년 연속 활동한 정예 선수단 가입할 수 있는 'K-10클럽'에는 김지현(31), 장수연(28)이 이름을 올렸고, 정규투어에서 1승 이상을 거둔 선수에게 특별상이 수여됐다.
3년 연속으로 챔피언스투어 상금왕 자리를 오른 김선미(49)와 드림투어 상금왕 김서윤(22)가 감격의 순간을 누렸고, 생애 첫 승을 거둔 성유진(22), 유효주(25), 윤이나(19), 이가영(23), 정윤지(22), 한진선(25), 홍정민(20), 홍지원(22), 황정미(23) 등 9명의 선수가 'KLPGA 워너스클럽'에 가입했다.
100% 골프팬의 투표로 이뤄지는 인기상은 임희정(22)이 받았다.
골프 기자단에서 수여하는 'Most Improved Player Award'의 주인공으로 정윤지(22)가 뽑혔다.
'KLPGA와 SBS가 함께하는 메디컬 드림위드비디'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한 자선기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뉴시스

두산, 양의지 6년 최대 152억원에 영입...역대 최고액

4년간 NC 활약 후 컴백... "두산의 재도약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

두산 베어스(사장 전풍)가 22일 FA 포수 양의지(35)와 KBO리그 역대 최고액에 계약했다. 계약기간은 4+2년이다. 계약조건은 첫 4년 계약금 44억원, 연봉 총액 66억원이며, 2026시즌 종료 후 인센티브 포함 2년 최대 42억원의 선수 옵션이 포함됐다.
양의지는 6년간 최대 152억원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은퇴 이대호가 받은 FA 최고액 4년 150억원을 경신한 금액이다.
양의지는 2006년 신인드래프트에서 두산의 2차 8라운드 지명을 받아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16시즌 통산 1585경기에서 타율 0.307, 228홈런 944타점 OPS 0.892를 기록하며 KBO 역대 최고 포수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두산 베어스 관계자는 "구단과 선수 모두 프

로 생활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졌다. 팀의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해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팬들이 양의지의 복귀를 원했다. 그 목소리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한 결과 계약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양의지는 "좋은 대우를 해주신 박정원 구단주님 이하 두산 베어스 구단에 감사드립니다"며 "팬들의 염원에 보답하기 위해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 4년간 아낌없이 응원해주신 NC 다이노스 구단과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그는 "목표는 하나다. 동료들과 힘을 합쳐 두산 베어스의 재도약을 위해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한화, 대어 잡았다...FA 채은성과 6년 최대 90억원 사인

"팀이 더 높은 곳 향할 수 있도록"

프리에이전트(FA) 채은성(32)이 한화 이글스 품에 안겼다.
한화는 22일 "채은성과 계약기간 6년에 계약금 36억원, 총 연봉 44억원, 옵션 10억원 등 최대 90억원에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2009년 육성선수로 LG 트윈스에 입단한 채은성은 프로 입성 후 처음으로 팀을 옮긴다. 2014년 1군에 데뷔한 그는 통산 1006경기에서 타율 0.297, 96홈런 595타점 438득점의 성적을 냈다.
올해는 주로 4번 타자로 나서며 126경기 타율 0.296, 12홈런 83타점을 기록했다.
한화는 채은성에 대해 "통산 득점권 타율 0.322로, 만루홈런 6개를 포함해 주자가 있을 때 55개의 홈런을 기록하는 등 클러치 상황에서 강한 선수"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비에서 코너 외야와 1루수가 가능한 자원이자. 현재 팀 내 공수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선수

로 판단해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순혁 한화 단장은 "채은성은 꾸준한 성적과 함께 최근 7년 연속 100경기 이상 출전한 모범적인 선수로 장타력과 타점 생산력이 우수해 영입을 결정하게 됐다. 인성 또한 훌륭한 선수다. 젊은 선수들이 많은 우리 팀에 솔선수범하는 베테랑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영입 배경을 밝혔다.
한화에 새 동지를 틀게 된 채은성은 "계약논의 초반부터 많은 준비와 진정성으로 다가와주시는 한화의 정성에 계약을 결정하게 됐다. 저의 가치를 인정해주신 한화 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외부에서 봤던 한화의 모습보다 구단과 직접 깊은 이야기를 통해 향후 비전을 들으면서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결정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항상 큰 목소리로 응원해주시는 열성적인 한화 팬 여러분의 모습을 반대편 더그아웃에서 지켜봤는데 이제는 그 응원을 등에 업고 그



리안드로 나갈 수 있게 됐다. 팬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팀이 더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도 밝혔다.